



조선산업 불황 여파로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 관련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일 오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의 한 중소 블럭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업 불황 위기의 대불산단

올들어 20여회사 경매 넘어가고
협력업체 부도·야반도주도 속출

조선산업 불황 여파로 대불국가산단 단지가 휘청이고 있다. 대형조선소의 수주 감소와 중형조선소의 붕괴로 연관 업체들이 잇따라 몰락하고 있다. 올 상반기 20여 개의 공장이 경매에 나왔는가 하면, 업체 대표의 야반도주도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급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 입주업체 가운데 부도로 인해 경매에 나온 물건이 지난 2009년 3개사에서 지난해 10개사, 올 상반기 20여개 사로 크게 늘었다.

30여명의 직원이 일했던 A선박업체는 수주 물량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돼 최근 폐업했고, 6600㎡(2000평)

규모의 공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됐다. 대불산단 내 경매는 올들어서만 20여건이 나왔고 현재 5건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06~2008년 조선 호황 때 사업 확장고 신규 진출 추진했다가 하반기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조업 물량이 급감하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불산단 분양률도 폭 떨어졌다. 조선 호황에 힘입어 대불산단은 2007년 99.2%, 2008년 100%의 분양률을 기록했다가 2009년 94.4%로 떨어졌다. 대불산단의 위기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형조선소들의 부분별한 중형선박시장 진출도 한몫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09~2010년 유례없는 불황을 겪었던 대형조선사들이 중형

선박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 조선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중소조선사들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 조선사들의 몰락은 하청업체의 부도도 이어졌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목포지역의 부도율은 지난 2007년 0.51%(229억원)에서 2008년 0.90%(400억원)로 급증했다. 2009년에는 0.66%(277억원)로 다소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0.14%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가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문의 대학원 062) 605-1114
광신대학교

실제 B업체의 경우 최근 임금과 금용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장이 야반도주 했다. 이같은 사례는 연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올들어 8월까지 목포권 사업체체의 임금체불이 총 1920건에 65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70건, 54억8000만원)보다 체불액이 20% 증가한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우암학원 장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불편한 역사의 진실 덮어 달라고?

국방부 "국군 서술 부정적" 교과서 5·18 내용 수정 요청

국방부가 교과서에 기재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내용이 군대의 잔학성을 부각하는 등 국군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있다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 군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것은 물론 이승만·박정희 정부 등의 긍정적 역할은 과소 평가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19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광주 서울)은 국방부가 현재의 교과서에 담겨있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이 군대의 잔학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현 교과서 왜곡, 편향, 축소 기술실태' 자료를 통해 제시한 군의 잔학성 부각 내용은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부분과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학살을 자행하였으니..."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5·18 광주 민주화

□ 국군에 대한 부정적 서술

- '5.16' 관련 軍의 부정적인 측면 부각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들은 장면 정부의 부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 16일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장악한 후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다... 한편, 군사 정부는 반대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비판세력을 탄압하였다." [지학사 p. 351-352]
- '5.18 민주화 운동' 중 군대의 잔학성 부각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삼화출판사 p. 356]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지학사, p. 307]

국방부가 교과부에 보낸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

운동의 진상을 정확하게 적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수정 요청은 사실상 '불편한 역사의 진실'을 덮어달라는 요청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교과서에 기술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용은 수십년에 걸쳐 진상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방부가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역사를 바로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5·16 및 베트남 파병과 관련, 군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의 영역을 위

어넘어 "한국사 교과서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등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고 건국과 근대화, 경제발전의 기여 등 긍정적 역할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집필 기준의 개정을 제안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현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고 북한의 체제와 실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사건과 연계, 군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조국 수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천 NCC, 100대 기업 연봉 킹

8900만원 1위...기아차 8200만원 3위

금융권을 제외한 매출액 100대 기업 가운데 작년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여천 NCC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아자동차와 호남석유화학 등 광주·전남지역 연구 기업 3곳이 10위권 이내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지식경제부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김낙성(자유선진·충남 당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천 NCC의 직원 평균 연봉이 8900만원

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전자(8600만원), 기아자동차(8200만원), 현대자동차(8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7900만원), 현대로템(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호남석유화학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한화케미칼 등은 7300만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 삼성에스디에스 등은 71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삼호중공업(주)은 각각 6800만원, 금호타이어는

■ 평균 연봉 상위기업 (2010년 기준)

순위	기업명	평균연봉
1	여천 NCC	8900만원
2	삼성전자	8600만원
3	기아자동차	8200만원
4	현대자동차	8000만원
5	삼성엔지니어링	7900만원
6	현대로템	7400만원
	호남석화, 현대모비스	
7	한수원,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케미칼	7300만원

6200만원, 금호석유화학은 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 0 1 1 L E E S U N H E E C O N C E R T

여왕의 귀환! 이선희의 콘서트

11.5(토) PM 7:00 11.6(일) PM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올해로 가수 인생 27년을 맞은 '국민 디바' 이선희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선희는 이후 서울 세종문화회관공연 등 전국 투어 콘서트 마다 매진사례를 기록 하며 음악팬들을 열광 시켜왔습니다. 1983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에게'로 데뷔 후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아 옛날이여' '인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온 이선희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아티스트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최 | **광주일보** **KBC** 주관 | **KBC 미디어룸**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220-0541)**
예매 | **쇼티켓/인티파크**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